

## **백원국 제2차관, ‘추석 연휴 차질 없는 택배 배송에 만전’ 당부**

### **- 22일 택배터미널 찾아 추석 택배 특별관리대책 추진상황 점검 -**

-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월 22일(금) 오전 9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 관악 서브터미널을 찾아 추석 대비 택배 특별 관리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, 대책 기간(9.18.-10.14.) 중 차질 없는 배송 및 종사자 안전을 당부하였다.
- 백 차관은 CJ 관계자로부터 추석 특별관리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뒤, “이번 추석 연휴에도 택배 물동량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임시인력을 충분히 투입하는 등 차질 없는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  - 또한, “택배업계는 차질 없는 배송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, 심야배송 제한과 휴식보장 등을 통해 종사자 과로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해 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- 이어, 백 차관은 택배 상·하차 및 분류작업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택배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며, “추석 특별관리대책 기간 중에는 지연배송에 따른 책임을 택배 종사자에게 지우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심야배송 등 무리한 작업을 삼가고 근무 중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가질 것”을 거듭 당부 하였다.
  - 이와 함께, “정부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택배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택배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겠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
2023. 9. 22.

국토교통부 대변인